

“결작을 쓰거나 읽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결작으로 사는 것이다. 결작으로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결작을 통해 다른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본다.”(본문 중에서)

어떤 작품이 결작이 되는가? 아니 결작은 어떤 책을 말하는가? 독자들은 왜 결작에 환호하고 결작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데카메론’, ‘로미오와 줄리엣’, ‘적과 흑’, ‘지옥에서 보낸 한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문학사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빛나는 결작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그 결작들을 늘어놓고 보면 그 수만큼이나 개성들이 다양하다. 장르, 주제, 형식, 문체,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다.

결작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풀어낸 책이 나왔다. 프랑수아 출신 작가 샤를 단치가 펴낸 ‘결작에 관하여’는 결작과 관련된 모든 문의를 거침없이 풀어낸 책이다. 그는 호메로스를 비롯 디킨스, 보들레르, 도스토옙스키, 보르헤스, 푸르스트 등의 작가들이 쓴 200여 편의 문학 작품을 토대로 결

# 결작

결작을 쓰거나 읽는 것보다  
결작으로 사는 게 아름다워

작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독자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결작에 뒤따르는 편견과 오해를 통렬히 비판한다. 일례면 이런 것이다. ‘결작은 영원하다’거나, 이와 달리 ‘결작의 시대는 끝났다’ 등의 평가가 어떻게 독자의 향유 권리를 왜곡하고 방해하는지 면밀히 파헤친다.

그렇다면 결작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을까. 저자에 따르면 1752년에 처음으로 썼는데 정작 그 이후로는 결작에 대한 책이 나온 적은 없다. 개념 자체가 부정확하고 변질되기 쉬웠다는 의미다. 그만큼 결작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을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수가 인정하는 다소 쉬운 개념인 ‘고전’이 등장한다. 그러나 ‘고전’은 ‘보편성’이라는 잣대로 이편의 취향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개념에 다름 아니다. 보편적인 것이 신성한 것으로 굳어져 종교화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취향이나 심미안적 안목보다 시험을 대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또 하나, 결작의 고전화는 결작의 영원성이라는 오해를 낳는다. 즉 불후의 명곡이라거나 불멸의 결작과 같은 수사가 이런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저자도 결

## 결작에 관하여

샤를 단치 지음



작이 “영원성의 외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결작에 영원이라는 권위를 덧씌우는 시도는 박제화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독자가 결작을 즐기고 향유할 때라야 결작 또한 생명력을 지닌다. 박제화된 결작이 아닌 열정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우선이라는 논리다. 저자는 오히려 기존의 결작과는 다른 개념을 제시한다. “문학에서 결작은 고유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책이다.”

그 같은 ‘예외적’은 결국 결작의 기준이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결국 결작은 전형이나 기준이 아닌 그 가치를 아는 독자들의 평가에 의해 생명력이 담보된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 영화로 제작되는 결작은 많은 이들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전편을 관통하는 주제는 간단하다. 결작은 규범화될 수 없으며, 결작을 쓰고 읽는 것보다, 결작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결작이 되는 것이다.

“결작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결작이 되는 것이다. 살면서 어느 순

간 결작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인생은 길고 우여곡절도 많고 또 단순롭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 결작이 되는 사람들이 더욱 존경스러운 것이다.”

〈미디어 월·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공감... 위로...

70대 노교수와 30대 청춘이 주고 받은 서른 두통 편지

### 가장 사소한 구원

라종일·김현진 지음



연임했다. 편지를 주고 받자는 제안을 한 이는 김씨다.

김 씨는 ‘자기비하’, ‘좌절’로 가득찬 편지를 보냈다. 그녀가 던지는 질문들은 정곡을 찌르고, 날 서 있고, 매섭다. 이에 노 교수는 엄중하고 상냥하고 따뜻한 답을 보냈다. “이야기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당신이 그 고통들을 글로 쓸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써 낫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김씨에게 큰 힘이 됐다.

저자는 “성장통을 겪는 청춘들, 어른의 세계에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는 나같은 늙은 청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책을 냈다”고 했지만 청춘을 지나온 이들이 읽어도 가슴에 남는 글들이었다.

〈알마·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현진은 10대 시절 출간한 ‘네 멋대로 해라’로 유명 인사가 됐다. 이후 ‘한겨레’, ‘시사 IN’ 등에 자신만의 시각으로 칼럼을 썼다. 어느덧 삼십대가 된 그녀는 ‘집도 절도 백도 없는 도시 빈민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다. 최근 1~2년간 수차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큰 사건을 연이어 치른 그녀가 보낸 SOS에 응답했던 이가 있었다. 그녀가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는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다.

“가장 사소한 구원”은 70대 노교수와 30대 청춘이 주고 받은 서른 두통의 편지를 담은 글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강준만 교수가 김씨의 책 ‘그래도 언니는 간다’에 대해 쓴 서평을 본 라 교수가 먼저 전화를 하면서 시작됐다. 라교수는 정치학자 출신으로 국가정보원 차장,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주영대사 등을

## 새로 나온 책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용=예로부터 우리는 사계절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왔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듯 사람들 사이에는 한 해를 단위로 일정한 시기에 피어난 행동양식 또는 생활행위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굳어진 양식을 ‘세시풍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식도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한국 세시풍속이 보여주는 지속과 변용의 의미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민속문화 전통의 정체성을 조명한다. 〈채륜·2만2000원〉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제도상의 여러 협정 가운데 하나로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와 경쟁,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자



유로운 선거를 특징으로 한다. 1987년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 1997년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와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질적으로 좋아졌는가? 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중간 결산을 제시한다. 〈후마니타스·2만8000원〉

▲감성치유=감성치유란 감성의 힘을 회복해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성치유는 내 마음을 회

복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 삶을 온전히 지켜내는 자기 치유와 삶의 회복 과정인 것이다.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유와 편안함을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일상에서 감성을 치유하고 습관이 몸에 배 수 있도록 돕는 감성치유의 내공 키우는 법을 소개한다. 〈전나무숲·1만5000원〉

▲아제가 없는 남자, HM의 기억=이 책은 기억에 관한 뇌과학의 시작과 발전에

대한 매력적인 개괄이자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한 감동적인 전기다. 기억 연구의 핵심 주역이었던 수엔 퀸 박사는 뇌과학의 도전적인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눈부신 성과 뒤에서 함께 했던 사람, 46년간 헌신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자신의 환자 헨리 몰레이슨을 세상에 소개한다. 그가 들려주는 헨리의 삶과 그의 사례 연구는 신경외과의 암흑기에서 출발해 뇌과학의 역사를 관통한다. 〈알마·1만9800원〉

▲달의 이면=20세기의 대표적 지식인 레비-스트로스가 생전에 발표한 여러 글에서 일본을 주제로 한 것들을 묶어냈다. 책에 실린 아홉 편의 글들은 강연록과 짧은 에세이, 잡문,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으로 197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쓰였고, 그 20년간 레비-스트로스의 주된 사유가 어떻게 발전, 전개되었는지 가능하게 해준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 어린이 책

▲내가 리더야=프랑스 그림책이 원작인 이 책은 마틸다라는 소녀가 사회에 존재하는 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제멋대로 밥’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대통령이 되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법 덕분에 이 나라 어린이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마틸다의 믿음과는 달리, 어린이들은 병이 들고 무절제하게 제멋대로 행동하여 사회가 혼란스



러워진다. 책은 말 안 듣는 말괄량이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 리더가 되고 싶은 어린이들이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서

알려준다. 〈주니어 김영사·8500원〉

▲내 생각 먼저 물어봐 주세요=아이에게는 자신의 입장에서 어른에게 바라는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있다. 그런데 아이가 이런 요구 사항들을 어른에게 제대로 표현하거나 올바르게 전달하는 법을 몰라 그저 때를 쓰거나 좀처럼 입을 열지 못한다면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책에는 엄마가 공감하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모습이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상상스쿨·9800원〉

▲루루랄라 블루베리 따라가요=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일도 오랫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잘 보이지 않던 소중한 깨닫게 된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따라 블루베리를 따라 다닌 클라렌스는 이제 할머니가 좋아하는 블루베리를 적 보면 안다. 할머니가 어떤 맛과 어떤 모양의 블루베리를 좋아하는지도, 물론 할머니도 클라렌스가 어떤 블루베리를 좋아하는지도 안다. 그것은 돌만의 비밀스러운 작은 행복으로 오래오래 함께 했기에 공감할 수 있다. 〈노란상상·1만원〉

www.yonhapnews.co.kr

# 2만7천명 인물정보 한눈에... '2015 한국인물사전' 발간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국내 최대 인물사전 '2015 한국인물사전'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7천여 명의 프로필을 수록한 '2015 한국인물사전'이 발간됐습니다.

연합뉴스가 펴낸 이 사전은 정·관계를 비롯해 경제계·학계·인문계·문화예술계·체육계·종교계 등에서 활동하는 저명 인사를 두루 망라하는 국내 최대의 인물사전으로서 자세한 인물정보와 함께 사진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기획인물편에서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4천여 명의 명단(상권 수록)과 프로필(하권 수록)을 한 색으로 편집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수록 인사들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자료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인터넷과 관련 문헌도 꼼꼼히 참조해 보완했습니다.

2015년판은 지난해에 비해 3천여 명을 추가했으며, 수록인물도 상당수 바뀐 최신 인물 소개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 국배판 · 상권 1천244쪽 / 하권 1천612쪽  
■ 가격 : 18만원

구입처: 서울 (02)398-3590~3, 398-3591~3592, 398-3593~3594, 398-3595  
부산 (051)239-2222, 239-2223, 239-2224, 239-2225  
인천 (032)427-1236, 427-1237, 427-1238, 427-1239  
대구 (053)281-0010, 281-0011, 281-0012, 281-0013  
대전 (042)521-9705, 521-9706, 521-9707, 521-9708  
광주 (062)264-5777, 264-5778, 264-5779, 264-5780  
충남 (051)441-7400, 441-7401, 441-7402, 441-7403  
대구 (053)355-3800

연합뉴스 YONHAPNEWS.COM